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 통해 ESCO사업에 기여하겠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정부가 언젠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현행 성과배분제의 경우 ESCO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성과보증제에 관한 연구는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성과보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김종선 교수는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ESCO제도가 도입된지 10년. 올 4월 말 현재 ESCO사업은 총 1,674건에 3,068억원이 투자돼 1,113억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에너지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ESCO사업은 현행 계약 방식인 성과배분제의 특성상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ESCO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

가장 객관적 보고서작성 9월 말까지

“ESCO제도의 본 고장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 등지에서는 혼용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배분제보다는 보증제가 압도적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보증제로 시작했구요. 또한 최근에는 ESCO가 독자적으로 조명과 같은 일부 보증된 기술 분야에 있어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표는 성과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적 골격을 갖추는데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도 추세거니와 보증제로 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는 것이다. 성과보증제의 경우, 시설자금에

대한 조달의무와 책임을 에너지사용가가 지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ESCO의 부채비율 증가라는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ESCO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성과보증제와 배분제가 혼용되었을 경우 ESCO 내부 부서끼리 의견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자금부서와 영업부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사용가 입장에서도 시설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해외에서 보증제가 선호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ESCO, 에너지사용가,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에너지사용가, ESCO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김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ESCO사업은 매우 유망한 업종중 하나이다. 시장구조에 의해 자율적으로 에너지시장 구조의 개편이 일어날 경우를 상정해도 에너지 비용의 상승에 따른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ESCO사업은 역시 전망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혀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마인드의 문제 가 매우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ESCO 투자방식은 사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투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SOC분야에 투자하는 BOT(Build, Operate & Transfer)투자방식에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사용가들이 에너지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비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등을 생각할

[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도 추세거니와 보증제로 가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는 것이다.]

때 ESCO들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너지절약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측정 및 검증(M&V) Tool의 개발 등 업계와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 보증제는 세계적 추세 전문가 그룹과 대화 통해 솔루션 도출 예정

김 교수는 ESCO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가, 금융관계자, 법률가, 회계사, 공단 및 정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떠나 제도가 가져다주는 메리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성과 보증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연구 성과물이 좋은 결과를 맺어 ESCO제도가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대학 연구실 031-750-1201, 개인 홈페이지(www.kimsvie.com)와 전문직 길라잡이 사이트 워스포닷컴(www.worxpo.com) 등으로 연락하면 김종선 교수를 만날 수 있다). ☺



김종선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그 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생신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 활동을 했으며 1991년에는 '길거리 경제(동아출판사 발행)'라는 단행본을 펴내기도 했다. 각종 TV와 잡지 등에 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하는 등 칼럼리스트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최

근에는 전문직 길라잡이 사이트인 워스포닷컴(www.worxpo.com)을 통해 그 리를 증명해 보이는 일까지 하고 있다.